

박사학위논문요약

E.C.U.A

성경이야기집단상담이 청년들의 하나님애착
및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김수안

1. 서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고전 1:1)’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성인들을 보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삶의 방향성이 잃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크리스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질적 공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정체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애착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성경적 상담과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기독교 상담에서 애착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연구자(연도)	연구제목	연구결과
최성호 (2005)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신앙생활 만족도의 차이	부와 모의 애착 수준을 구별하여 애착 수준과 자아정체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신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
정득 등 (2018)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종교 활동이 자아의 객관화와 긍정적 자아를 가지도록 하여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데 긍정적 요인이 되고, 문화 활동은 정서적 순화를 통해 자아정체성과 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명
김미경 (2017)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 애착표상이 종교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애착 표상이 내재적 종교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상가설을 지지.
이향숙 (2011)	기독교인의 성인애착과 하나님 애착관계	불안정 애착과 일치관계에 있는 내담자는 하나님과 안정 애착을 구성하는 기독교 상담이 필요하고 불안정 애착과 보상관계에 있는 경우는 보상관계 교정을 위한 영적 돌봄이 포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이야기 집단상담이 하나님 애착(attachment with God)과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의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데 있다.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가치관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아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진로 선택과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리 정서적 그리고 영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주 연구 대상인 청년들의 애착과 자아정체성의 실태를 파악하여, 성경 이야기 집단상담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정서적 유대감인 애착을 강화하고, 개인의 신앙적 경험을 통합하여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초기 주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안정 애착의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고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심리 정서적 변화와 영적 성장의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현재 20-30대 청년들의 애착 유형과 자아정체성 그리고 영적 · 심리적 상태는 어떠한가
- ② 하나님 애착은 자아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③ 성경 이야기 집단상담이 하나님 애착을 강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④ 성경 이야기 집단상담이 참가자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무엇인가
- ⑤ 성경 이야기 집단상담을 통해 경험되는 심리적 · 영적 치유의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애착이론

애착이론은 볼비가 체계화하였으나 볼비 이전인 18~19세기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프로이드와 대상관계이론 및 자아심리학 이론 뿐 아니라 동물행동학과 인지발달이론과 정보처리이론 등 여러 학자들의 영향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애착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시도한 학자는 프로이드(1905)로 그는 영아가 수유를 담당하는 대상에게 보이는 정서적 선호현상을 애착관계로 보았다. 프로이드가 보는 영아는 먹는 욕구와 빨기의 즐거움 욕구로 가득 찬 수동적 존재로, 어머니란 존재는 영아에게 있어서 구강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애착의 대상이라 보았다.

반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클라인은 영아를 내적 환상 속에서 초기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내적 대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또한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도입하여 어머니와 영아 사이에 관계적 존재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 자아의 일부를 어떤 대상에게 투사를 하게 되면 투사의 대상은 투사한 사람의 감정과 행동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어 투사자에게 조정당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볼비는 클라인의 이론에 대하여 유아의 상호작용을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환상으로 설명한 것은 환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을 뿐 아니라 유아의 실제 경험은 무시하여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볼비와 같은 대학에서 수학한 위니컷은 클라인이 내적 환상으로 이해한 영아의 관계 방식을 자기대상이론으로 전개하면서 ‘안아주는 환경’으로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엄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안아주는 환경’으로서 ‘충분히 좋은 엄마’의 개념은 볼비가 말하는 안전지대로서의 엄마 역할로 유아로 하여금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동물행동학 이론이 애착 이론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로렌츠(1965)와 할로우(1958)의 실험 결과이다. 로렌츠는 갓 부화한 거위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상에게 애착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여 ‘각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다. 할로우(1958)는 태어나 어미와 분리된 새끼 원숭이에게 철사 어미와 천으로 덮힌 대리모를 제시하였을 때 음식을 제공하는 철사 어미보다 대부분의 시간을 천으로 덮힌 대리모와 함께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애착이 단순히 수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됨을 강조하였다. 자연주의자였던 볼비는 두 사람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서 각인 현상이 개체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착 행동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존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또한 새끼 원숭이가 어미와 애착 체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놀랄만한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탐색하는 모습은 안전기지의 개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상관계 이론 다음으로 애착 이론에 영향을 미친 이론은 인지발달과 정보처리 이론이다. 볼비는 인지발달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상 개념을 내적 작동모델로 설명한다. 그는 어린 아이는 자신과 외부 세계와의 경험을 통해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표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양육자의 반응에 따라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처리이론은 내적 작동모델이 발달해가는 방식을 설명해준다. 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외부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기능에 들어와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고 인출되는 과정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볼비에 의하면 영아는 출생하면서 외부의 특정 정보, 특히 생존과 관련된 애착 정보에 선택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양육자는 이러한 주의집중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착 관련 정보들은 장기 기억화되어 지식 기반처럼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여 또 다른 애착 정보를 해석하거나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내적 작동모델이 정교화되기 때문에 애착 발달을 위해서는 인지기능이 선행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볼비는 여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애착 이론이라는 관계 이론의 독립적인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볼비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모성박탈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그는 이별과 상실을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 볼비는 영아가 주양육자와 맺

는 정서적 유대감을 ‘애착’이라고 하였고, 그의 이론을 보다 정교화하게 되는 계기는 ‘낮선 상황실험’으로 유명한 아인스워드의 연구이다. 두 사람의 공동 연구 결과 애착, 애착행동, 안전기지, 낮선 상황에서의 탐험, 애착 유형, 내적 작동모델 등과 같은 구체적 개념들이 정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애착 유형과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정교화는 아인스워드의 제자였던 메인의 연구가 더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 상담을 지향함에 있어서 일반 심리학 이론을 일반은총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신학적 고찰 없는 무분별한 적용은 자칫 성경적 가치관에 어긋남은 물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무관할 수 있다. 따라서 애착 이론을 성경적인 관계성에 적용가능한 부분과 성경적 가치관에 부조화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과 관련 연구들을 통해 고찰하였다.

①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적 본성 : 성경은 여러 종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관계는 삼위인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였음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하나님은 천지창조와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주권자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시29:10, 전3:11, 마10:29~31). 또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로 관계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정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자녀를 출산하여 번성하며 피조세계와 관계하도록 하셨다. 이 관계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이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과 신뢰성이라 할 수 있다. 애착 이론에서 중요한 것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한 자녀가 경험하는 안정감과 신뢰성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묘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인이 경험하는 것은 어린 자녀의 경험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② 성경적 가치관과 애착 이론의 부조화 : 원죄와 내면화, 자연주의적 세계관

첫째 원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볼비는 유아와 아동이 그들 부모와의 관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원죄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발달과 정신병리에 있어 많은 연구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원죄로 인하여 발달에서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와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죄의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심리학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애착 이론을 살펴볼 때 볼비는 애착을 본능적 행동으로 보면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타고난 행동패턴이 동물의 본능적 행동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에 의하면 인간의 관계성은 생존의 수단으로 목적이 없는 행동으로 비본질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계획과 구원에 관한 계획이 있었음을 말한다(엡1:4-5; 1:11, 딤후1:9, 살후2:13). 또한 우리의 존재와 구원을 예정하신 이유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¹⁾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지어진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영적으로 죽었다²⁾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것이 충만했던 아담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핍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인간은 그러한 결핍의 상태를 채우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생존의 방편으로 본능에 의하여 어미를 찾는 동물의 반응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동물의 행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물은 그 대상이 생

1) 사 43:21, 요 1:12, 롬 8:15, 고후 6:18, 갈 4:5, 엡 1:5-6, 계 5:12 ; 7:12

2) 엡 1:3-19

존과 직결된 어미이지만 인간에게 있어 그 대상은 반드시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대상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인간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대상을 찾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생물이 아닌 물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중독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된다. 중독의 대상이 곧 정서적 유대감이 나 쾌락과 연결이 되어 있음으로 중독은 애착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관계성은 동물적 본능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내재된 것으로 일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차적으로 나와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2) 하나님 애착이론

애착 이론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틀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발달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애착 이론을 인간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즉,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유대와 그로 인한 심리적, 영적 영향을 탐구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애착 이론을 개념화하고 있다.

애착 이론을 신앙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적용한 학자는 커크페트릭이다. 그는 생애 초기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성인 애착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들의 종교적 행동들을 애착 행동의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즉 애착 행동의 네 가지 특징인 근접성의 추구하고 안식처의 개념, 안전지대를 바탕으로 외부세계를 탐색하는 것, 그리고 애착 대상과 분리시 저항하는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와 이론들이 성경적 상담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점검과 분별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애착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견해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속성을 지닌 인간이 영적인 속성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애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 역시 영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중의 한 명이 모든 율법 중에서 첫째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³⁾이라고 대답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애착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애착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어, 애착 이론으로 보면 불안정 애착이라는 것이고,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우상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요 4:24)라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먼저 돌보며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점이 희망이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를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하나님을 애착 대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삶에서 "

3) 막 12:29-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는 분"으로 여겨진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히 13:5)고 약속하셨다는 믿음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접근성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고난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심리적 또는 영적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이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기록된 시편 46편 1절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안전지대로서의 의미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 회복을 하게 된 신자는 험한 세상으로 나가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심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보내심으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여기며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⁴⁾

이상으로 살펴본바와 같이 성경의 근거뿐 아니라 일반은총의 관점에서 하나님 애착 이론을 성경적 상담에서 이론적으로 활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자아정체성 이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심리학적 관심을 가지고 자아정체성이란 용어로 정리한 사람은 에릭 에릭슨이다. 그는 청소년기에 자주 하는 일련의 질문들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보았다. 자아정체성이란 존재의 자아 속성이며 자아의 통합방법으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정신적 건강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다양한 도전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에릭슨에 의하면 정체성 형성은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에 그 뿌리를 두고 전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그는 발달 이론을 전생애 발달 이론으로 확장하였다. 그의 발달 이론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발달단계	특징
신뢰감 대 불신감	프로이드의 구강기 시기로 정신적 활력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신뢰감으로 생후 1년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 형성. 부모의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을 통해 기본적 신뢰감 형성.
자율성 대 수치심	프로이드의 항문기로 보유하고 내보내는 상충적 행동 패턴들을 조절하는 능력의 향상으로 자율적 의지를 경험하게 됨. 엄격하거나 이른 배변 훈련으로 자율적 선택에 의한 아이의 시도를 방해받게 되면 구강기로 퇴행하면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됨.
주도성 대 죄책감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로 활력이 넘치고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주변을 탐색하면서 남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짐. 양심의 발달로 들끓는 것 같은 두려움뿐 아니라 자기 관찰, 자기 안내, 자기 처벌이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자신을 분열시키는 강력한 소외이기도 하지만 도덕성 발생의 토대가 됨.
근면성 대 열등감	프로이드의 잠복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상상력의 시기를 지나 열정적으로 배우는 시기. 의무, 규율, 수행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성장할 준비가 된 시기로 다른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제한을 가하는 대신에 함께 만들고 건설하며 계획하는 것을 공유하길 열망함. 자신과 과제로부터의 소외감 즉 열등감이 이 단계의 위기로 배우려는 욕망과 의지보다 외적인 외모나 부모의 배경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라 느끼게 되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는 성향으로 악화될 가능성.
정체성 대 역할 혼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후기 학령기에 해당. 이전 단계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각 단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4) 신 6:4-9, 시 18:1-2, 요일 4:16, 엡 1:3-6, 롬 8:35-39,

	수 있음. 재능의 훈련, 역량과 발명의 역할과 동일시하면서 이념적 전망을 받아들임. 정체성 혼란으로 역할 혼란이 지속될 경우 비행과 경계성 질환의 에피소드가 빈번히 나타남.
친밀감 대 고립감	정체성이 잘 형성된 경우 성적인 친밀감 이상으로 타인과 진실하고 상호적인 심리사회적 친밀감을 개발할 수 있고 후기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이러한 친밀감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면 고립감을 갖게 됨.
생산성 대 자기 침체	생산성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안내하는 것과 연관되며 자녀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다른 형태로 이타적인 관심과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함. 생산성의 본질적이고 병리적인 문제는 다음 세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유년기와 청소년 시기의 위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생산성의 실패로 인하여 나타나는 소외의 악화된 형태임을 암시.
통합감 대 절망감	사람과 사물을 돌보고, 사물과 타인의 기원이자 생산자라는데서 오는 승리감과 절망상에 적응한 노년기는 점차적으로 완성을 의미하는 통합의 단계.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혼합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호보완적 강점 때문이다. 양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패턴을 측정하여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고, 질적 연구를 통해 참여자 개인적 경험과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타당도 확보 및 삼각 검증을 위해서이다. 동일한 연구 주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적 연구에서 발견된 통계적 패턴을 질적 연구를 통해 설명하고, 질적 연구에서도 도출된 의미를 양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체적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개인의 변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양적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를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애착과 자아정체성 및 다른 변수들의 변화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양적 연구는 사전 연구로써 교회에 출석하는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척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연구이다. 사전 연구의 수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청년들의 애착과 자아정체성 및 신앙 성숙도와 정서적 안정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성경적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둘째, 집단 참여자 선정의 기준인 초기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 유형을 만족시키는 참여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불안정 애착 유형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이야기 집단상담의 영향을 관찰하여 향후 성경적 상담과 교회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찾아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셋째, 관련 척도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연구 참여자들의 실태 뿐 아니라 각 척도들에 대한 선행 연구와 비교 검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선행 연구들을 보면 하나님 애착과 연관된 한두 가지 척도의 관계성에 대하여는 알 수 있지만 여러 척도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여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 참여자들의 사전 평가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상담 이후 사후 평가와 더불어 집단 참여자들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사전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SPSS Statistics 3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신뢰도 검증과 연관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질적 연구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 중에서 집단상담에 참여의지가 있고 불안정 애착 유형을 선정하여 8명으로 구성하여 성경 이야기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자료는 전체 집단상담에 참여한 5명의 활동자료와 심층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애착과 자아정체성, 신앙성숙도 및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양적 변화의 양상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

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내러티브적인 방법과 현상학적 방법을 함께 적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적 연구 방법은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와 연결하여 참여자의 성장과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연구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대한 줄이면서 집단상담을 통해 집단의 공동 주제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방법이 유용하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4. 연구결과

1) 양적자료분석 결과

설문 대상자의 인구학적 통계 분석 결과와 하나님 애착, 자아정체성, 신앙성숙도, 심리적 안정성의 하위척도별 기술통계 결과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n=160

부애착				모애착				하나님애착			
		빈도	퍼센트	평균	빈도	퍼센트	평균	빈도	퍼센트	평균	
안정	안정	74	46.3	15.05 18.89	80	50.0	15.88 16.25	42	26.3	22.19 24.29	
		29	18.1	32.21 25.01	15	9.4	41.4 21.0	15	9.4	42.13 25.67	
불안정	집착 회피 혼란	24	15.0	13.96 49.75	15	9.4	17.73 38.0	54	33.8	21.0 35.11	
		33	20.6	41.12 46.09	50	31.3	40.24 41.22	49	30.6	42.39 39.41	
전체		160	100.0		160	100.0		160	100.0		
하나님불안정				하나님안정				합			
부모불안정				78				20			
부모안정				40				22			
합				118				4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부애착	부불안	9		58		23.38		13.414		0.917	
	부회피	9		63		30.24		15.461		0.943	
모애착	모불안	9		58		26.06		14.152		0.921	
	모회피	9		61		26.54		13.438		0.928	
하나님애착	하나님불안	10		68		29.84		12.807		0.891	
	하나님회피	15		55		32.67		8.145		0.777	
자아정체성	주체성	17		50		39.59		7.446		0.928	
	자기수용성	14		50		38.99		9.434		0.930	
	미래확신성	18		50		38.03		8.927		0.842	
	목표지향성	14		50		36.53		10.356		0.946	
	주도성	12		50		36.31		9.268		0.926	
	친밀성	15		50		35.96		9.325		0.912	
	코이노니아	15		45		32.22		6.227		0.939	
신앙성숙도	케리그마	10		42		28.59		4.144		0.940	
	디다케	13		42		30.31		5.193		0.938	
	레이투르기아	11		45		33.63		7.315		0.921	
	디아코니아	13		41		31.36		6.042		0.886	
	인지적신앙생활	24		60		45.09		7.704		0.960	
심리적안정성	정의적신앙생활	25		84		61.65		10.714		0.903	
	의지적신앙생활	5		20		12.94		2.817		0.673	
	공격성	11		54		25.67		10.392		0.897	
신앙생활	열등감	11		54		25.48		12.134		0.946	
	긴장수준	10		49		25.14		10.464		0.909	

애착 유형의 실태를 보면 부와 안정 애착 유형을 보인 비율은 160명 중 74명으로 46.3%였고, 모와 안정 애착을 보인 경우는 80명으로 50%를 차지하였다. 이중 부와 모 모두에게 안정 애착인 경우는 62명으로 38.75%를 차지하였다.

하나님과의 안정 애착 유형은 42명으로 26.25%를 차지하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와 안정 애착인 62명 중에서 하나님과 안정 애착 유형인 경우는 22명이고 40명은 하나님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 불안정 애착인 98명 중에서 하나님과 안정 애착은 20명, 하나님과 불안정 애착은 78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애착과 하나님 애착 간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와 안정 애착이어도 하나님과 불안정 애착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하여, 부모와 안정 애착의 경우 하나님과 안정 애착일 확률이 높다는 일치가설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의 경우는 일치가설과 보상가설로 하나님 애착 유형의 형성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착 척도간 상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이나 회피적일수록 하나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하나님 회피는 부불안의 영향이 가장 강하지만 부모와의 회피적 성향이 하나님과 회피적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에서도 하나님 불안의 결정계수($R^2 = 0.421$)가 하나님 회피의 결정계수($R^2 = 0.218$)보다 높게 나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 부 분석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 불안, 아버지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 회피에 보다 큰 영향력이 있어서 부모와 회피적인 관계보다 불안한 관계가 하나님 애착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였다.

애착 척도와 자아정체성의 상관관계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나 하나님과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자아정체성의 모든 하위척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할수록(부불안, 모불안, 하나님불안) 자기수용성과 주도성 및 목표지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 회피적일수록 목표지향성, 주체성이 낮아짐을 확인했으나, 하나님과 회피적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보이므로, 부모와의 애착이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 개입 시 부모와의 애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아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관계에서의 불안은 자기수용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애착과 하나님 애착, 자아정체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하나님 애착을 매개변인으로 자아정체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하나님 애착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 참여자들의 양적 자료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n=5)

변수	사전평균	사후평균	평균차이	t-값	p-값
하나님불안	38.4	38.0	-0.4	0.06	0.953
하나님회피	36.0	36.8	0.8	-0.29	0.787
주체성	31.0	37.0	6.2	-2.98	0.041**
자기수용성	30.2	37.2	7.0	-2.12	0.041**
미래확신성	30.0	30.8	0.8	-0.31	0.772
목표지향성	22.2	30.4	8.2	-2.71	0.053
주도성	30.6	31.6	1.0	-0.63	0.561
친밀성	26.2	32.6	6.4	-4.26	0.013**
코이노니아	26.6	35.0	8.4	-3.21	0.033**
케리그마	26.4	29.8	3.4	-1.98	0.119
디다케	27.6	34.6	7.0	-1.99	0.118
레이투르기아	26.4	33.4	7.0	-2.59	0.061
디아코니아	28.2	32.8	4.6	-2.01	0.115
인지적신앙생활	42.0	48.2	6.2	-1.88	0.133
정의적신앙생활	51.8	63	11.2	-2.05	0.110
의지적신앙생활	12.2	13.2	1.0	-1.83	0.142
공격성	29.6	29.4	-0.2	0.16	0.880

열등감	37.6	34.4	-3.2	1.23	0.285
긴장수준	34.8	33.8	-1.0	0.88	0.430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자료의 분석 결과 집단상담을 통한 하나님 애착 하위 척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상담의 개입이 단기간 내에 하나님 애착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후 장기적인 개입 시 더 큰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자아정체성 하위 척도의 변화를 보면 모든 하위 척도에서 평균이 증가하였고 이 중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하위 척도는 주제성, 자기수용성, 그리고 친밀성이다. 반면 미래확신성과 주도성은 모두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2) 질적자료 분석

질적 자료는 주1회 3시간씩 총 5회의 집단상담에 참여한 5명의 활동자료와 면담자료를 통해 내담자별 변화의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주요주제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먼저 내담자별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초기에 참여자들은 부정적 자기상과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관계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집단 중기에는 집단상담 안에서 수용과 존중의 경험을 통해 자기 이해와 수용이 회복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집단 말기에는 신앙의 변화를 보였는데 하나님을 동행자로 재경험하게 되어 신앙성숙과 내적 치유의 경험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별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참여자	초기	말기
A	하나님에 대한 집착	동행하시는 하나님
B	하나님과 거리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C	자신을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기대
D	신앙적 거부	신앙에 대한 수용
E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

다음은 현상학적 방법에 의한 주요 주제와 의미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

주제	의미
불완전한 애착에서 비롯된 자기정체성의 혼란	- 불안정 애착의 기원: 부모의 결핍, 학대, 무관심, 양가감정 (A, B, C, D, E) - 애착유형의 자기 인식: 혼란형, 회피형, 불안형 등의 자각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 - 자신에 대한 질문들: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되나?” - 이스마엘-이삭 이야기의 투사: 비교, 버림받음, 권리 박탈에 대한 자기 동일시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 무관심한 타자 → 함께 걸어가는 존재	- 과거: 방임, 침묵, 두려움, 무감각, 형식적 존재 - 현재: 빛, 바람, 옥토, 나침반 등 감각적 이미지로 상징화된 ‘동행자 하나님’ - 변화 계기: 찬양, 말씀 묵상, 공동작업, 역할극, 상담자의 피드백 등 - 대표 상징어: “쓰레기더미 속의 빛”, “바람 같은 인도자”, “눈물 자국을 지워가는 주님”
성경 인물에 대한 해석과 자기 동일시	- 다윗과 요나단: 이상적인 수용적 관계에 대한 갈망 (A, E), 현실적 거리감 (B, D) - 이삭과 이스마엘: 피해자-가해자 구도로 본 형제 이야기 속 자기 투사 ▷ 이삭: 회피적 애착과 침묵, 순응 ▷ 이스마엘: 과보호와 버림받음 경험에서 오는 불안정한 자아

하나님과 ‘관계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기 인식	• 장애물 인식: 부정적 사고, 감정적 마비, 자기 회피, 형식주의 • 회복 시도: 말씀, 찬양, 집단활동을 통한 연결 재시도 • 역할극과 피드백의 힘: 역할 수행 속에서 타인의 입장 체험과 감정의 해방 경험 • 공동 미술작업: 하나님을 ‘하늘’, ‘손’, ‘피의 꽃’, ‘못 박힌 자국’, ‘성전’ 등으로 상징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자기 정체성	• 정체성 문장 구성: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다.” • 변화 경험: “나를 보게 되었다”, “신앙을 갖게 되었다”, “뿌엇던 나의 정체성이 선명해졌다” • 자기 서사 회복: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다시 위치시키기
치유와 회복은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여정	• 공동체의 지지 경험: 서로의 피드백, 조별 활동을 통해 ‘나’를 다시 구성함 • 영적 회복은 즉시가 아니라 점진적: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방향을 알게 되었다” • 하나님의 임재 경험: 일상의 사건, 관계, 기도와 말씀 속에서의 만남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부모와의 경험으로 인하여 부정적 자아상을 내면화하였다는 것과 내면화된 부정적 대상이미지를 외부로 투사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참여자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 이를 다시 5개의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대부분 유년 시절 양육자의 정서적 결핍, 폭력, 무관심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형성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 형식적 관계, 불신의 이미지로 투사되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인가?”와 같은 내적 질문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심화시켰다.

둘째, 자살 충동, 공황, 정체감의 붕괴 등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지 종교적 회귀가 아니라, 존재론적 회복의 시발점이었다.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 속의 빛”, “미로 속 길잡이”, “눈물 자국을 지워주는 분” 등 감각적이고 관계적인 이미지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다윗과 요나단, 이삭과 이스마엘 등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기 경험을 투사하며 의미를 구성하였다. 요나단은 이상적 수용자(A, E), 이삭은 침묵하는 회피형(B), 이스마엘은 과보호 속 불안을 지닌 존재(D)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참여자들이 자신을 성경 이야기 속에 위치시키며 자기 이해를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넷째, 역할극, 공동 미술작업, 그림카드 활동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차 “감정을 허용해주는 분”, “기다리시는 분”, “동행자”로 변화되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안정 애착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감정 해석과 관계 양상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

다섯째, 최종 회기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신앙적 정체성을 직접 언어화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전이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은혜로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등의 진술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집단상담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자아 인식의 표현이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애착 회복이 곧 정체성 회복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착과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심리적·영적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집단상담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성경적 상징과 공동작업을 통해 이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 논의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표본과 관련된 제한이 있었다. 사전 설문자료에서 성별의 불균형, 집단 참여자들의 정신과적 심리상태, 일부 지역의 표본 등 다양한 표본 확보의 한계성이 있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웠으며, 제한된 표본으로 인하여 통계분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집단상담의 참여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상태에서는 집단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본다면 본 연구의 효과성 검증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정신과 치료 중인 참여자들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자들을 혼합한 집단 구성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앙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집단 구성은 정신과적 치료 중인 참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집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될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불안이 높아져서 공황을 경험하거나 손톱을 물어 뜯는다는 보고를 통해 이들이 교회안에서조차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통계방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수가 부족하여 주요 척도들의 관계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에 제한을 받았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00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여, 매개효과 분석(Mediation Analysis)과 기본적인 회귀 분석만이 가능하였다. 둘째, 성경 이야기 집단상담 참여로 인한 하나님 애착 및 자아정체성과 신앙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제한된 표본 크기와 개인 간 변동성이 커서 사전-사후 평균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최소한 8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비교 집단 검증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으나,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하여 검증할 수가 없었다. 넷째, 집단 상담에서 성경인물의 생애사를 알기 위해 성경 본문이 길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짧은 집단 회기 구성으로 인하여 주요 척도들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집단 참여자들의 피드백 뿐 아니 t-검증에서 유효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이 끝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변화를 위한 실천을 스스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사후 인터뷰에서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 드러난 부분으로, 이번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참여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이들에게 단회성의 집단상담으로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음이 한계로 보여 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상담 후에 집단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이나 개인상담으로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큰 표본을 확보하여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고, 통제집단 설정과 장기 개입으로 변화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뿐 아니라 집단상담이 마무리된 이후 추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2) 실천적 제언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성경 이야기 집단상담이 하나님과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자아정체성 확립 및 신앙성숙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과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여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 정서적 및 영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는 현실을 볼 때 목회와 상담 현장에서 성경 이야기를 활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목회 상담 및 교회 내 적용 방법으로 첫째, 하나님과의 애착이 불안정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

경 이야기 기반의 상담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식 전달의 성경 공부와 더불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애착 유형과 신앙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신앙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인의 애착 유형과 신앙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소그룹활동은 많은 경우 갈등과 상처의 연속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셋째, 성경 이야기 상담을 경험 한 이후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성경 이야기 상담을 활용하여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다.

다음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성경 이야기 기반의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기존의 성경 공부 방식에 내러티브 접근법을 결합하여 보다 개인적이고 심층적인 신앙 경험을 제공한다. 셋째, 성경 이야기 집단 상담을 교회 내 멘토링 및 양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상담에서의 활용 방법은 첫째, 불안정한 하나님 애착을 가진 내담자들에게 성경 이야기 상담을 적용하여 정서적 안정과 신앙 성숙을 돕는다. 둘째,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서 성경 이야기를 활용한 내러티브 치료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성경 이야기 속 인물들과 자신의 경험을 동일시하며 내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본 연구는 성경 이야기 집단 상담이 하나님 애착과 자아정체성, 신앙 성숙도 및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 효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장기적 개입 및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담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성경 이야기 집단 상담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 애착 및 자아정체성의 변화가 유지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대상군을 적용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20-30대 불안정한 하나님 애착을 가진 청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연령대나 신앙 연륜이 다른 집단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학생, 목회자, 새신자 등 다양한 대상군에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비교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다. 비교 연구는 일차적으로 애착 유형별 집단 구성을 통한 변화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이차적으로 통제 집단과 비통제 집단 비교를 통한 집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 집단 상담과 기존의 기독교 상담 기법(예: 인지행동적 접근, 내러티브 상담 등)과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상담 기법과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신앙 성장 및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모델을 제안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리더의 영성과 집단 구성원 간의 신뢰성 구축이라 생각된다. 성경 이야기에 대한 조명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칫 지식 전달이 될 수 있음과 그동안 교회나 부모에게 들었던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신뢰성이 기반되지 않으면 집단에 대한 참여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기독청년들이 가진 문제가 영적, 심리적, 관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바라볼 때 본 연구가 성경적 상담을 지향하는 많은 상담사들과 연구자들에게 도전이 됨과 동시에 향후 연구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